

무안국제공항 '코로나 직격탄' ... 69만명 줄었다

지난해 10만189명 이용... 전국 15곳 중 감소율 최대
운항편수·화물량도 '급감' ... 5079편·5283t 줄어
국내선 많은 광주공항 15만명 ↓ ... 여수공항 5514명 ↑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무안국제공항이 전국 15개 공항 중에서 여객감소율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무안공항은 지난해 여객수가 무려 69만여명 감소하며 사실상 '계절휴업'을 면치 못했다. 반면 국내선 이용객이 많은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은 여행수요 감소로 인한 충격이 덜했다.

20일 한국항공협회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15개 공항의 여객 수는 3967만1379명으로, 1년 전보다 68.1% 급감했다. 전년(1억 2428만6883명)에 비해 무려 8462만명이 감소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무안공항 여객은 10만189명으로, 전년 78만8498명보다 87.3%(-68만8309명) 급감했으며, 운항 편수도 5892편에서 813편으로 86.2%(-5079편) 줄어들었다. 화물량 역시 전년도 84.7%(-5283t) 감소한 953t에 그쳤다.

무안공항의 여객감소율은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15개 공항 중에서도 가장 컸다. 이어 사천공항이 9만4700여명 감소하며 87.3% 감소율을 나타냈고, 인천국제공항은 5886만명 줄어 감소율 83.1%를 기록했다. 이밖에 대구(-72.8%), 김해(-68.4%), 원주(-66.6%), 군산(-64.4%), 청주(-42.6%), 김포(-39.5%), 제주(-37.1%), 포항(-30.8%), 울산(-29.7%) 등 순이었다.

무안공항은 상하이와 기타큐슈, 타이베이, 방콕, 다낭 등 10여개 국제선 노선이 잇달아 신규 취항하면서 여객수가 2017년 15만6379명→2018년 32만 4528명→2019년 78만8498명 등 꾸준히 증가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제선 비중이 많았던 탓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타격 역시 컸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대다수 국내 공항이 30%를 웃도는 여객 감소율을 보였지만,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공항 여객은 86만5642명으로, 전년(102만명)보다 14.9%(-15만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난 2016년(80만5854명) 이후 4년 만에 여객 수가 최저를 기록했지만, 전국 평균 감소율(-68.1%)과는 격차를 크게 벌였다.

전년도보다 여객이 늘어난 곳은 여수공항과 양양공항 뿐이다. 지난해 여수공항의 여객은 총 32만8157명으로, 전년 32만2643명보다 1.7%(5514명) 증가했다. 코로나19로 해외로 가는 하늘길이 막히면서 국내 관광객 등 여수공항 여객 수요가 늘어났고,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신규 취항 및 증편이 이뤄졌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난해 광주 노선을 취항한 양양국제공항의 경우 2019년 여객 4만3519명에서 지난해 12만 6219명으로, 무려 3배(190.0%·8만2700명)가량

공항	2020	2019	증감수	증감률
무안	10만189	78만8498	△68만8309	-87.3
사천	1만3800	10만8526	△9만4726	-87.3
인천	1200만1379	7085만7908	△5885만6529	-83.1
대구	98만7263	362만7700	△264만437	-72.8
김해	419만7109	1327만9882	△908만2773	-68.4
원주	1만8841	5만6329	△3만7488	-66.6
군산	5만4831	15만3897	△9만9066	-64.4
청주	100만6491	175만4357	△74만7866	-42.6
김포	896만5606	1482만2924	△585만7318	-39.5
제주	1069만1604	1700만6345	△631만4741	-37.1
포항	3만3659	4만8631	△1만4972	-30.8
울산	28만589	39만8917	△11만8328	-29.7
광주	86만5642	101만6807	△15만1165	-14.9
여수	32만8157	32만2643	5514	1.7
양양	12만6219	4만3519	8만2700	190
합계	3967만1379	1억2429만	△8462만	-68.1

〈자료:한국항공협회〉

뛰었다. 광주-양양 노선을 이용한 여객은 1만5973명으로, 제주(6만8816명)와 김해(2만2339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한편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비롯한 여행업계의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광주지역 해외여행·국내여행·일반여행업의 폐업신고는 32건, 휴업신고는 5건으로 총 37개 업체가 휴·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14.55 (+21.89)
↑ 코스닥	977.66 (+19.91)
↑ 금리(국고채 3년)	0.976 (+0.002)
↓ 환율(USD)	1100.30 (-2.60)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광주경총, 참여기업 모집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오는 12월까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 디지털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위기 이후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다. 청년층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근무나 연관 분야 취업을 돕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IT관련 직무를 가지고 있는 피보협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나 중소기업이다. 참여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참여 기업에게는 월 지급 임금 수준에 따라 1인당 최대 190만원까지 지원한다.

앞서 광주경총은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총 270명의 청년의 취업을 지원한 바 있다.

김정훈 광주경총 노동경제정책본부장은 "해당 사업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채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정규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채용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백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광주은행과 함께하소' 오픈뱅킹 행사

3월 28일까지 상품권 등 증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오는 3월28일까지 '광주은행과 함께하소' 오픈뱅킹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오픈하소'와 '가입하소' 2종류로 진행되며 참여 대상은 문자와 휴대문 마케팅 동의 고객이다.

'오픈하소' 참여는 광주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신규 가입 후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서 광주은행 본인 계좌로 1만원 이상 이체하면 된다.

광주은행은 선착순 1만명에게 GS25 편의점 모바일상품권(2000원)을 제공한다.

'가입하소'는 적금 가입 후 오픈뱅킹 자동 출금 서비스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규 적금계좌로 월 1만원 이상 자동 출금을 신청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는 신세계이마트 1만원권 상품권을, 50명은 3만원권, 30명은 5만원권을 준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kjbank.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백희준 기자 bhj@

효성티앤씨, 노스페이스 만나니 지구는 좋겠네



REGEN JEJU

'다시 태어나기 위한 되돌림' 업무협약 ... 친환경 섬유 '리젠 제주' 공급

효성티앤씨가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에 친환경 섬유인 리젠 제주(regen jeju)를 공급하기로 했다.

효성티앤씨는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삼다수(제주개발공사)·노스페이스(㈜영원아웃도어)와 친환경 프로젝트 '다시 태어나기 위한 되돌림'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에서 수거한 페트병으로 만든 효성티앤씨의 친환경 섬유 리젠 제주를 노스페이스의 옷 등에 적용,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 제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다시 태어나기 위한 되돌림'은 제주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주도가 제주삼다수·효성티앤씨와 손잡고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프로젝트다.

제주도와 제주삼다수는 제주에 버려진 투명페트병을 수거하고 효성티앤씨는 이를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인 칩으로 만들어 친환경 섬유 리젠 제주를 생산한다. 노스페이스는 리젠 제주로 자켓과 티셔츠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출시할 예정이다.

최근 효성의 친환경 섬유 리젠이 작년 대비 약 2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윤리적 '가치소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 브랜드에 대한 영향력과 구매력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효성티앤씨는 2000년대 초부터 친환경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정하고 재활용 섬유 개발을 계속해 2008년 국내 최초 페트병에서 추출한 폴리에스터 리젠을 개발했다.

지난해에는 불순물 세척 공정을 추가·강화하는 등 고품질 섬유 생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국내 최초 제주 페트병을 사용해 재활용 섬유 '리젠 제주'를 만들었다.

리젠 제주는 일반 재활용 섬유에 비해 염색성이 좋아 컬러발색이 선명하게 되는 등 일반 재활용 섬유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환경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친환경 제품 개발 등 관련 업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올 농업생산액·농가소득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

농촌경제연구원 전망

올해 농업생산액과 농가소득이 소폭 증가하나 그 폭은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일 내놓은 '농업전망 2021'에서 올해 농업생산액을 지난해 대비 1.9% 늘어난 52조503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농업생산액은 51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재배업은 2020년산 쌀과 과실 가격 상승, 2021년산 과실 생산량 회복으로 지난해보다 2.5%, 축산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가소득은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4373만원으로 추정했다.

농가인구는 지난해보다 1.8% 감소한 216만 2000명, 농가 호수는 1.0% 줄어든 98만5000호로 예상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그린알로에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